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68.34	↑ 코스닥	782.05
	(+23.22)		(+9.21)
↓ 금리 (미국 9년)	3.949	↓ 환율 (원/달러)	1322.40
	(-0.030)		(-20.50)



생성형 AI 저작권 충돌 잇따라... 글로벌 규제 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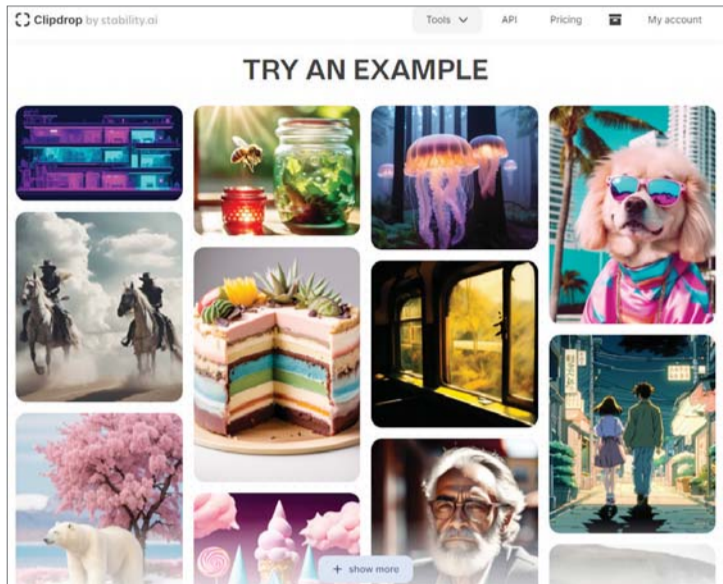
AI의 은밀한 비밀

〈上〉 저작권 소송

챗 GPT(chatGPT) 공개 1년. 인공지능(AI)에 세계가 뒤집혔다. 정해진 답을 어색한 문장으로 말하던 AI는 화면 너머 사람이라도 있듯 말하고, 문외한도 단어 몇 개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발전에 빛만 있으랴. AI에 화난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다. 눈부신 AI 발전의 그늘, AI가 말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의 작품'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AI가 맛따뜨리고 세계 어느 곳도 갈피를 못 잡은 '저작권'.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美 법원, AI 저작권 소송 기각 기밀성·방대함으로 확인 불가
바이든 AI안전 행정명령 서명 180일 내 권고안 마련 지시 국내서도 가이드라인 준비

인공지능(AI)의 대중화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를 학습할 때,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는 소스코드 저장소 '깃허브'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는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테빌리티AI 화면. 키워드 또는 문장을 토대로 이미지를 제작한다. /스테빌리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AI 훈련부터 개발, 생산,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골자한 행정명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저작권청장에 180일 이내 AI 학습 관련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창작물과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챗GPT(chatGPT) 이후 AI의 발전상황이 공유되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제

작성 가짜 정보 확산이 가장 먼저 논란을 일으킨 후 AI 업계 밖까지 들쭉날쭉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AI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되는 학습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이 다양한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소송이 줄지어 이어졌다. 지난달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는 유니버설뮤직,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글로벌 음반사들은 앤스로픽이 비윤세, 롤링스톤즈 등 유명 가수 노래 500여 곡 가사를 학습에 무단 이용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의 요구에 클로드가 기존 노래 가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깃허브의 한 이용자 또한 M S, 오픈AI(OpenAI) 등에 "오

픈AI의 코텍스, 깃허브의 코파 일럿이 오픈소스의 코드를 훔쳤다"며 소송에 나섰다. AI로 제안되는 코드가 공개된 깃허브의 동일한 코드 문자열로 구성되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상 첫 AI 학습에 관한 저작권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만화·일러스트레이터 3인(사라 앤더슨·캘리 맥커넌·칼라 오티즈)가 스테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작가 3인은 자신들의 저작물 중 일부가 이미지 생성형 AI 데이터셋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각 프로그램이 원본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작가들이 제시한 작품 중 대다수가 저작권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생성형 AI의 데이터셋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기각한 윌리엄 오릭 판사는 "스테빌리티AI의 '스테이بل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기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있는 출력물을 내놓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계 DX, 혁신의 트리거 생존·ESG 경영 필수 과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보고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 강연 :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전종목 공매도 전면금지”

금감원, 20명 규모 특조단 출범 “불법 공매도에 시장안정 저해 약 10개 글로벌 IB 전수 조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가운데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면서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비롯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

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7월 말 이후 이달 3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0%, 16.4% 하락했

다. 미국(S&P500 -5%)이나 유럽(유로스톡스 -6.6%), 일본(니케이225 -3.7%) 등 해외 주요 증시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추진한다.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과 공매도 과열종목제도 개편 등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간차입조건 등이다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출범한다”며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당, '공매도 한시 금지' 한목소리... 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사진 뉴스스
-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김형두·조희대·정영환' 압축

- ▲ 국민의힘, '지역 필수'로 혁신 TF' 발족... 6일 첫 회의
- ▲ 해외연수 취소 '충북도의회, 예산반납 앞두고 유럽연수 확정



- ▲ 민주당 김포 의원들 “교통이 먼저...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돼” /사진 뉴스스
- ▲ 육·해·공 헬기 물갈이한다... 신형 훈련헬기 '벨 505' 40년 만에 도입

이재현 “온리원 정신,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 가져야”

(CJ그룹 회장)

CJ그룹, 창립 70주년

故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 가져
그룹차원 70주년 대외행사는 안해
온리원 재건 전략회의 비공개 진행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새기고 위기돌파를 다짐했다.

CJ그룹은 지난 3일 오전 지난해 창립 기념일에 타계한 고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을 갖고, 이어 오후에는 이재현 회장 주재로 ‘온리원(ONLYONE) 재건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엄중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CJ그룹 성장에 평생을 기여해온 고인과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을 되새기며 내실을 다지는 취지다. 그룹 차원의 70주년 대외행사는 별도로 없었다.

11월 5일은 CJ그룹의 모태인 CJ제일제당이 1953년 부산공장에서 우리나라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고 손복남 고문 1주기 추모식에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헌화하고 있다. /CJ그룹

최초로 설당을 만들기 시작한 날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이 창립기념일로 지정했고, CJ그룹은 창립이래 줄곧 이날을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다.

앞서 3일 CJ인재원에서 진행된 고 손복남 고문 추모식에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이미경 CJ ENM 부회장, 이재

환 재산흥당스 회장, 장순인 이선호 CJ 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손녀이경 후 CJENM 브랜드전략실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일가 친인척과 주요 계열사 CEO 등이 참석했다.

손 고문은 이재현 회장이 평소 “어머님은 선주(船主), 나는 선장(船長)”이

라고 표현할 정도로 CJ그룹의 탄생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 고문은 작년 그룹 창립기념일인 11월 5일에 향년 89세로 타계해 그룹 70주년 창립기념일이 곧 1주기 추모식이 됐다.

이 날 CJ그룹은 CJ인재원의 메인 교

육홀을 손복남 홀로 헌정해 ‘겸허(謙虛)’ 등 고인이 계승한 기업이 정신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CJ인재원은 이재현 회장이 고인과 어린 시절을 보낸 집터(서울시 중구 필동로 26)에 위치해 있다. CJ그룹은 2003년 손 고문이 인재양성을 위해 그룹에 내놓은 공간에 국내 최초 도심형 연수원인 CJ인재원을 개원하고, 그룹의 미래 주역을 양성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에는 이재현 회장 주재로 CJ인재원에서 ‘온리원(ONLYONE) 재건 전략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CJ주식회사 김흥기 대표이사와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해 그룹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온리원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은행 돈잔치’ 비판에 금융권 ‘상생보따리’ 푼다

尹대통령, 잇따 은행권 압박에
이자캐시백 등 서민지원 나서
‘정부, 과도한 개입’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잔치’, ‘종노릇’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진행했던 상생금융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온 2500여명 고객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해 약 4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2만 1000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3만 2000여명도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는다. 각각 210억원과 115억원 규모로 지원될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 약 6만여 명(300억원)도 이자 캐시백 수혜 대상이다.

우리금융도 소상공인·자영업자·청

년 등 취약계층 대상 상생금융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상품 개선,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역시 타 은행들의 발걸음에 맞춰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유도하는 정부의 상생금융은 올 상반기 이후 두 번째다.

올 초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성 과급 잔치’와 ‘이자장사’를 두고 ‘은행 돈잔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전 금융권은 부랴 부랴 상생금융 대책을 선보이면서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

환 지원 ▲채무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9개), 여전업권(7개), 보험업권(2개)이 올 3~8월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 규모는 총 1조 1479억원, 실제 집행 실적은 4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 주장될 역시 윤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 이달 셋째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소상공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 때리기 시즌2를 두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서민들의 손실을 은행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실업급여 부당수급 380명, 19.1억 적발

고용부, 중범죄 217명 檢 고발
19.1억 포함 36.2억 반환명령

정부가 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자 380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을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체류자가 편법 등으로 실업급여 받는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코로나 19 이후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을 적발했다”며 “부정수급액 19억 원에 대해 추징금 포함, 36억 2000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조사 등을 의뢰했다.

관련 피의자가 기소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하다.

점검받은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사용되는 컴퓨터의 IP주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색출 기법으로, 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역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수출 등 최선”

산업부, 12일까지 IPEF 7차 공식협상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대표단 구성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연내 마지막 공식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2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7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필라2(공급망) 협상은 지난 5월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돼 평상시엔 공급망 부정적 조치는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엔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등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

노건기 실장은 “IPEF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역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조세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며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간 경제협약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우리 총 교역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달라진 대통령 메시지... 이념·관례 깨고 민생·협치 물꼬

이재명 대표를 비롯 범야권 회동 민생타운홀 등 현장 목소리 청취 향후 거부권 행사 여부 이목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현장' 행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이념'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들은 민심을 참모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내놓은 메시지도 민생 중심이다. 지난 3일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또 지난 2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를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해 대전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를 만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정실에서 김진표 의장 등 5부요인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을 듣고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거나, 은행권을 향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참모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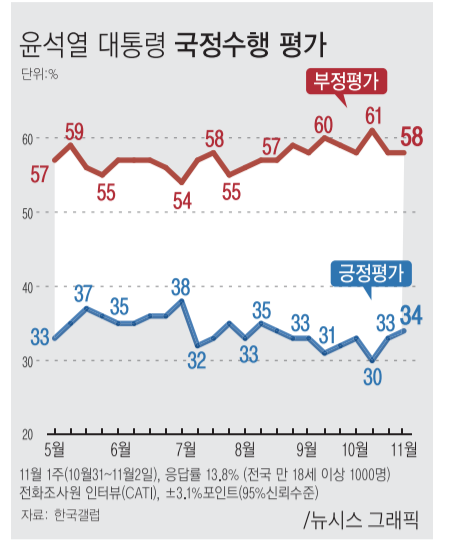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연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이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념 중심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

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념에만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흥분도 장군 흥상을 이전하며 발생한 논란 역시 중도층에 피로감을 더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도 경청했다.

연설문 초반에는 여야 손으로 부르던 관례를 깨고 "함께해주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생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야당과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5대 은행, 올해 기업대출 60조 '썩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기업대출 집중 경기부진 지속... "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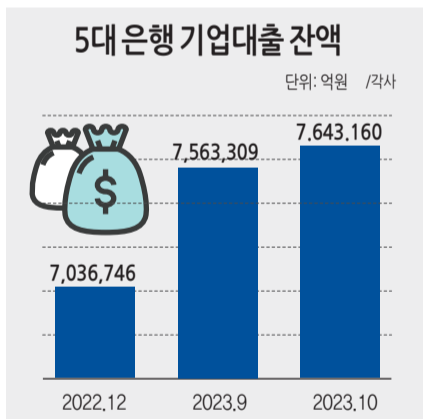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60조원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대출을 찾는 기업이 늘었고, 가계대출이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이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고금리 상황 속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764조3160억원으로 한달 전(756조3309억원)과 비교해 7조985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703조674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10개월만에 60조601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대출, 대기업 중심 증가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5대은행의 10월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7조3492억원으로 전달(132조9907억원)보다 4조3585억원 늘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 7월 2조9979억원 증가한 대기업 대출잔액은 8월 3조1949억원, 9월 3조586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1조8884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기업대출 증가액의 52.6%를 차지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928%까지 떨어졌던 회사채(무보증 3년·AA-기준) 금리는 이달 3일기준 4.789%까지 0.



861포인트(p) 올랐다. 은행 대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9월 기준 연 5.18%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금리가 비싸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단기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회사채는 기본 만기가 2~3년이지만, 은행 기업대출만기는 보통 1년이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들의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된 영향도 컸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우량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는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리스크관리, 운전자금 중심 강화 필요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9월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0.29%로 지난해 말(0.21%)보다 0.08%p 늘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8월말 기준 0.43%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47%로 6월 0.37%에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기업대출 등이 급증한 것도 연체율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대출의 질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늘어나는 기업대출은 주로 운전자금이다. 기업들이 조달하는 자금은 크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운전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조달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들어서는 운전자금 목적의 대출금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자부담은 한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기업대출 중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채비중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정부, 연내 주요 쟁점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이용 조화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

>> 1면 '생성형 AI 저작권...'서 계속

다만 법원은 제기된 일러스트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셋이 갖는 저작권 침해성을 인정해 AI 업계가 술렁이는 중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ICOTEC)에 참석한 매튜 새그 에머리대 교수는 데이터셋의 기밀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데이터셋이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모델 자체가 저작물을 침해하는 훈련 데이터의 복제품이자 저작물에 기초한 파생물"이라는 주장했다.

AI의 근원이 되는 LLM은 방대한 데이터셋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학습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지난 3월 메타가 논문을 통해 밝힌 생성형 AI 라마는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1조 4000억 토큰(token, 인공지능 데이터 단위) 분량 학습했고, 여기에는 커먼크롤 재단 데이터 67.0%, 깃허브 4.5%, 위키백과 4.5% 등 자료가 포함됐다. 오픈AI(OpenAI)에 따르면 GPT-3는 영어 위키백과, 신문기사 등을 선학습했다.

메타와 오픈AI 모두 세간에 공개한 학습 데이터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한 자

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작성했다더라도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거쳤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있다. 학습 데이터셋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방대한 용량과 기밀성 등으로 일반인이 각 LLM의 학습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황에 결과에서 발견된다고 밝힌다.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화한 않았으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갈 방침으로 연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라며 "초거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보호·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규범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K라면 승계 속도… 혁신·글로벌 주도 오너3세 ‘전면 등장’

원자재수급 등 경영능력 ‘입증’
“한식 해외전파 소명 의식 생겨”
‘혁신경영’ 주도 성과 인정받아

국내 대표 라면 회사의 오너 3세들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뛰어 들고 있어 승계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라운드스퀘어는 회사 비전의 조속한 실행과 현실화를 위해 예년보다 빠른 임원 인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전병우 전략기획본부장(CSO)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정기 임원 인사는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또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및 혁신의 가속화를 적극 추진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전병우 상무는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과 삼양식품 신사업본부장을 맡아 겸직하게 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전 상무 승진에 대해 그룹의 혁신 경영을 주도해 이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상무는 지난 7월 기업 이미지(CI) 리뉴얼을 추진했으며 기업 철학과 비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룹의 변화를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속조직으로 라면 TF팀을 꾸려 신규 브랜드 ‘뽕뽕’을 기획했으며, 지난 9월 진행한 비전선포식을 통해 공식



신상열 농심 구매담당.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기업의 향후 비전에 대해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농심의 연말 정기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열 상무가 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 아래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데, 경영 전면에 한 걸음 더 나옴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신 상무는 199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 졸업 후 2019년 농심 경영기획팀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듬해 대리, 2021년 11월 구매담당 임원으로 승진 후 원자재 수급 등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등 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농심이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낸다면 신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현재 신상열 상무가 맡고 있는 구매담당 업무는 제조기업에서 산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녀 함연지씨.

/함연지 YONJIHAM 유튜브채널

업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소맥분, 팜유 등의 원자재 관리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 상무는 금융 악화와 물류 대란으로 힘들었던 지난 2년간 악조건 속에서 원자재 수급에 매진해 경영능력을 입증했다. 올해 상반기 농심의 영업이익은 1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영업이익률도 2.6%에서 6.9%로 상승했다. 하반기에도 농심은 글로벌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신 상무의 승진에 힘을 신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오뚜기는 최근 몇 년간 3세 경영 체제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오뚜기는 자회사 오뚜기라면지주와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를 흡수합병하며 5년에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

걸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오뚜기가 양 사업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는 구조가 됐다. 이로써 오뚜기가 주요 계열사를 모두 거느리는 사업형 지주사 형태를 갖추게 됐다. 동시에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오뚜기 역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함영준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장녀인 함연지 씨가 해외 식품 부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남매가 모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함연지 씨는 그동안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뮤지컬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개인 유튜브를 통해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 것에 대한 소명 의식이 생겼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이자 한국 식품의 중심지

인 LA에서 현장을 배워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미국 현지로 거처를 옮겼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데다 함연지 씨가 오투기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경영 참여와 무관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투기는 최근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투기는 지난 8월 미국법인인 ‘오투기 아메리카홀딩스’ 산하에 생산법인인 ‘오투기 푸드 아메리카’를 설립했다.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미국 시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투기는 그동안 해외보다는 국내 사업 운영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K-푸드 열풍으로 경쟁사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 높은 성과를 냄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환경에 맞춰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오너3세를 전면 배치하는 모습이다”라며 “세대 교체와 함께 젊은 감각을 앞세워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통3사, 3분기 영업이익 1조 전망… 5G 가입자는 ‘주춤’

5G 가입자수 감소·통신비 압박 등 정부 정책에 수익성 악화 우려 커져 높은 요금제·서비스 품질 등 지적도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길 전망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수 감소와 정부의 통신비 압박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3사의 약 1조1986억원으로 집계된다. 올해 3분기 SKT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는 0.6% 증가한 4556억원, LG유플러스는 1.8% 감소한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5G 가입자 수 증가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5G 가입자들이 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총 3151만 명인데 이는 전월 대비 약 41만 명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482만명으로 제일 많으며 KT 943만 3889명, LG유

플러스 675만 5872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5G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 5G 신규 가입자는 3월 46만 9881명, 4월 42만 3119명, 5월 41만 5761명, 6월 32만 1108명, 7월 33만 9314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비 압박 정책도 통신사의 수익성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통신비가 4년 전보다 7% 오르는 동안 통신 3사 영업이익이 48% 급증했다”며 “과도한 영업이익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지형 SKT 부사장은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3사와 5G 요금제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



이동통신 3사가 7분기 연속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향하고, 남은 데이터는 환불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하는 개편을 논의 중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해상풍력, 성장 전망에도 높은 설치비용에 ‘발목’

고금리 장기화에 설비 투자비용 ↑

해상풍력은 작은 면적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 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설치 비용 문제로 인해 해상풍력발전의 성장이 더뎠다.

5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전체 에너지믹스의 약 23%를 차

지하며 주요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 관련 업계들은 풍력발전량을 늘리는 데 집중 중이다. 포스코인태너셔널은 노르웨이의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와 울산시 연안 70km 해상에 15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50기를 설치하는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기 50기 모두 750MW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남 진도군 해상에 3개 단지로 구성된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은 치솟는 설비·건설 비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상풍력은 한정된 설치 선박 대수로 인해 설치비와 해상풍력 케이블 연결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상승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공급망 전반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압박이 크다.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에 따르면 터빈과 같은 부품 및 장비와 인건비 등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비용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해상풍력 구조물의 주요 원

자재인 철강과 구리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에너지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였던 전남 영광 나원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좌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전남 영광 나원 프로젝트는 사업비 2조3000억원의 국내 최대 규모였으나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손을 뗐다. 사업 주체였던 서부발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490억원 규모의 출자를 철회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정국 블랙홀 된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총선판 '들썩'

오세훈, 김병수 만나 공식제안 예정
구리·고양·하남시 등 편입 추진
興 서병수 "경쟁력 잡아먹는 짓"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음에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11월은 예산 정국이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와중에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도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 중이다. '서울 확장론'을 내세우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잡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메가 시티 서울' 이슈가 수도권 총선 판세

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블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를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알파하고 비열한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해 이번 예산안에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여당이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선거만 바라본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김포시 국회의원 "김기현·조경태, 김포서 한 번 붙어보자"

김주영·박상혁 의원 기자회견서
"교통문제 해결 없이 서울편입 주장 뿐
편입 시 뿌리기업·특례입학 불이익"

경기 김포 갑·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5일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특별시로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제일 먼

저 제안했으며,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 인근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수도권 주민편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을 이끄는 인물이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

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울산광역시(울산 남)에서만 4선을 했고 조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산 사하)에서만 5선을 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중진이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금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

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5호선이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예산도 수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

다"고 부연했다.

두 의원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 개의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김포의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의 기피 시설 김포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野 '노란봉투법' 처리 공언 vs 興 '필리버스터' 총동원령

野,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환영 뜻 밝혀
興, 방송3법 필리버스터로 지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는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정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

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26일 기각됐다.

민주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과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전하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

자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60여명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1인당 3시간, 최소 15명 이상 참여하게 하면서 표결 지연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CHEF'S SPECIAL

명작반미

대한민국 조리명장이 만든 '명작' 반미



크랩&슈림프 7,600
Crab & Shrimp



바질슈림프 7,400
Basil Shri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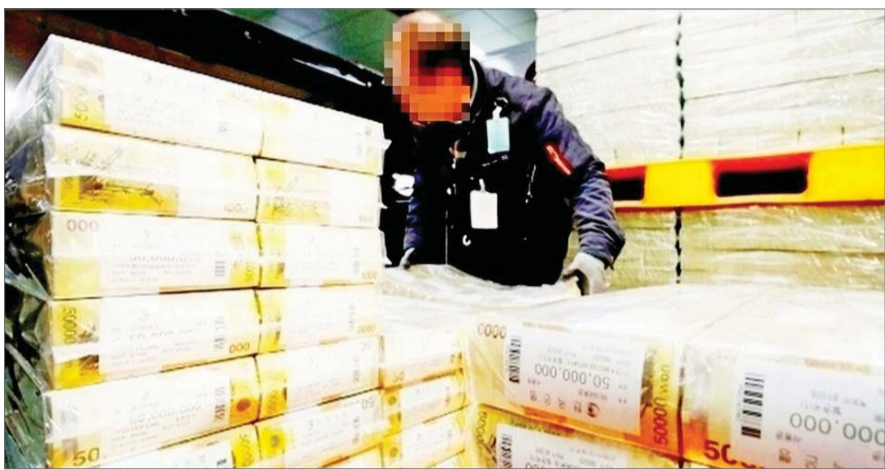
14대 대한민국 조리명장

남대현 名匠

여전채 금리 상승에 카드사, 해외·SRI 등 조달창구 다변화

(사회책임투자채권)

이달 1일 여전채 금리 연 4.92% 스프레드 66bp... 투자심리 축소
우리카드 ABS 2억달러 규모 발행
롯데카드 ESG채권 3000억 발행



여전채가 조달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여전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뉴시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조달창구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여신전문 금융사채권(여전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규모 캐피탈사는 조달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달 1일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4.92%다. 4분기 여전채 금리 상단이 연 4.94%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다. 스프레드(가산금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여전채 스프레드는 66bp다. 지난 9월 29bp까지 축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축소된 모양새다.

카드업계는 비용 절감을 해외 및 사회책임투자채권(SRI)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ESG채권, 녹색채권,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업계 1~2위 카드사를 제외하면 AA+등급의 카드사가 부담하는 조달 금리 또한 연 5%를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최근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곳은 우리카드다. ABS 2억 달러를 발행했다. 한화 약 2710억원 규모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결제하는 등 사회적채권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또한 조달창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SG채권과 녹색채권을 올 하반기에만 3400억원 발행했다. 지난 6월 발행한 ESG채권 3000억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이어 7월 발행한 녹색채권 4000억원은 200억원씩 두 차례 발행했다. 각각 만기도래 15개월, 24월 썩이다. 친환경 운송수단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이 밖에도 하반기 신한카드, 현대카드가 발행한 녹색채권은 5700억원 규모다.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1조원 규모의 신차 할부채권 기반 ABS를 발행했다.

한 여전채업계 관계자는 "녹색채권과 ESG채권 등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행 후 ESG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라고 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전사다. 기초자산이 부족해 디폴트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만큼 해외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조달 여건이 여의치 않다. 지난 1일 기준 A+등급의 여전채 금리는 연 6.08%며, BBB+ 등급의 여전채는 연 6.78%다. 아울러 독립형 중소 캐피탈사 중에서는 BBB+등급 또한 다수 존재한다. 해당 등급의 여전채 금리는 연 8.86%다.

업계에서는 연동형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시장금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최고금리가 확대되면 조달부담이 증가해도 타켓 마케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일부 대부업체는 문을 닫는 등의 충격이 온 상황이다"라며 "한동안 금리인하 시그널을 감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서울 집값 24주째 상승... 매수심리도 상승세

용산 이촌동 '우성' 8000만원 ↑ 송파 잠실동 '리센츠' 1.1억 올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최근 고금리 여파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하락 전환했던 매수심리는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다. 관망세를 보이며 전주(0.07%)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24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16%→0.09%)가 금호·성수동, 중구(0.12%→0.14%)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용산구(0.14%→0.19%)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동대문구(0.11%→0.18%)는 답십리·장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12%→0.10%)가 방화·내발산동, 영등포구

(0.14%→0.10%)는 여의도·당산동, 금천구(0.09%→0.10%)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북권에서는 서대문구(0.04%→0.09%)가 흥은·남가좌동 위주로 올랐다.

동남권의 경우 강동구(0.14%→0.13%)는 암사·천호동, 송파구(0.10%→0.12%)는 잠실·가락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위주로 일부 상

승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면서 "매도·매수인간 거래희망가격의 격차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우성'은 지난달 전용면적 58㎡가 13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매매가격(12억8000만원) 대비 8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24억8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10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3로 전주(88.2)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고금리 대출 이력, 신용점수에 부정적"

금감원 Q&A

10만원 이상 연체정보 금융권 공유 채무 어려울땐 신속채무조정 활용

Q. 최근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으려고 알아보니 개인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평점이나 신용정보 관리와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데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출 심사 시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관리등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출 이력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다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의 경우, 상환 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

니다. 다만 회복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거래정보의 부족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신용거래 내역이 없으면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할부, 카드대출은 신용평점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동일한대출정보라고 하더라도 CB사별로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므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경우, 5영업일 이내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활용 시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상미기자 smahn1@

둘째 주 전국 8곳서 5473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5473가구(일반분양 49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센트럴자이',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등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 경북 안동

시 옥동 '위파크안동호반',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푸르지오트레시엘'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17개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 규모의 후분양아파트로 오는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 등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며, 보름초, 신곡초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65-3번지 일원에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6~84㎡,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인근에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되었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흠플러스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김대환 기자

내 고양창릉지구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처음으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C-1블록 1필지로, 면적 4만1488㎡ 및 593가구 규모이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이다.

공급 가격은 2479억여원으로 3.3㎡당 1975만 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5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1순위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보유, 시공능력 보유 등이다. 1·2순위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토지공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1순위의 경우 ▲신청·접수(12월 4일 09:00~15:30) ▲당첨자 발표(12월 4일 17:00이후) ▲계약체결(12월 21~22일)이며, 2순위는 ▲신청·접수(12월 5일 09:00~16:00) ▲당첨자 발표(12월 6일 15:00이후) ▲계약체결(12월 21~22일)이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0년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고시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총면적 789만㎡, 수용인구 8만 6000명 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이규성기자 peace@

K-배터리 3사, 'LFP' 개발 속도... 중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

(리튬인산철)

LG엔솔 “양산 계획 앞당길 것”
삼성SDI 소재 등 생산라인 확대
SK온 LFP배터리 시제품 선배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꺾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역적자가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업계 발전과 함께 수출액도 2012년 조사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전기차 구매력이 쪼여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든다고 장기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성장세는 확실히 둔화한 모습이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대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인도량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42.7% 증가에 그쳤다. 앞선 2021년 상



삼성SDI P6 각형 배터리 이미지.



/삼성SDI

SK온 LFP 배터리 시제품

/SK온

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23.6% 증가했기에 폭발적인 이전 성장세와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미 시장의 전기차 인도량 증가율이 54.7%에서 53.2% 줄어들어 중국 시장보다는 둔화 속도가 느리지만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 개발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완성차들이 LFP 배터리에 '니즈' 가지고 있으며 LFP 배터리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NCM 계열 배터리 개발을 축소하거나 접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테슬라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출시 모델에 LFP를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기에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비해 LFP 배터리 개발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경쟁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

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 셀의 장점을 접목한 전기차용 LFP·LMFP 배터리를 개발해 저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LFP 배터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전기차용 LFP를

가능한 한 빨리 양산하도록 노력해 LG 에너지솔루션이 세운 기존 목표인 ‘2026년 상용화’보다 판매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삼성SDI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소재 생산과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손미카엘 삼성SDI 중대형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LFP 소재 관련 동종업체 대비 시작은 늦었지만 당사만의 제품 설계 최적화, 공정 및 설비 혁신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온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용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고급차량이나 픽업트럭 같은 대형차량의 매출이 높을 수는 있어도 배터리 보급률 자체는 중저가배터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이노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업계 선도 역할”

美 애리조나대 라마스와미 교수 분석
“기술 확장성·경제성 동시 달성 기업”

SK이노베이션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친환경 전환) 전략이 에너지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석학의 평가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美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쉐던버드 경영대학원의 카난 라마스와미 교수가 지난 3일 SK서린빌딩에서 ‘글로벌 피어(Peer)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를 화상으로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분석하고 동종기업 간 비교를 통해 차별적 이점을 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전략이 ▲명확한 사업전략 ▲우수한 기업문화 ▲투-트랙 혁신전략 세 가지를 지녀,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SK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과 만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 라마스와미 교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피어(Peer) 그룹과의 비교분석 케이스스터디’ 발표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카난 라마스와미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는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에너지 미래를 향해 대규모 변화를 굳건히 추진하는 기업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한 실천의지가 전사적인 비전, 사업 전략 등 회사 전반에 녹아들어있다”고 분석했다.

비교대상 기업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유사한 사업구조, 연혁, 사업 목표 등을 가진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을 선정했으며, 친환경 전략 집중도와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두 축으로 이행 수

준을 살폈다.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만이 지닌 차별점으로 유공시절부터 이어온 명확한 미래지향적 사업전략과 이를 실행하는 경영진의 일관된 리더십을 꼽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SK이노베이션 성과창출에 기여한 주요 요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사업 전략을 이행하는 리더십의 근원으로 ‘SKMS 기반 경영’, ‘SUPEX 추구’ 기업 문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라마스와미 교수는 SK이노베이션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확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발표에 대해 “탄소에서 그린으로의 사업 전환 비전인 파이낸셜스토리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우수성을 글로벌 석학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SK이노베이션 전 구성원에게 이번 분석 결과와 의미를 공유한 만큼, 이를 토대로 전략 실행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스타벅스서 휴양지 기분 만끽

LGD, ‘투명 OLED’ 공간 혁신

더여수 돌산DT점에 투명 OLED 적용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스타벅스 매장에 도입된다.

LG디스플레이는 스타벅스 더여수 돌산DT점에 투명 OLED 테이블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에 설치된 투명 OLED는 55인치 투명 OLED 12대를 이어붙인 8m 길이의 초대형 제품이다. 매장 자체를 명소화하는 목적으로 만든 스타벅스 ‘더매장’에서 혁신 공간을 구현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명 OLED 테이블은 매장 1층 중앙에 배치됐다. 파도가 출렁이는 영상을 구현해 매장에서도 바닷가를 연상케 한다. 음료를 올려놓으면 잔 주변으로 물결이 일렁이는 효과도 연출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스타벅스와 투명 OLED를 적용한 미래형 매장 콘셉트를 선보인 바 있다. 발열이 적고 안전하며 다양하게 설치 가능해



스타벅스 더여수돌산DT점에 설치된 투명 OLED 테이블. /LG디스플레이

확장도 용이하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55인치 투명 OLED에 이어 향후 77인치, 30인치 등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여준호 솔루션 CX 그룹장(상무)은 “투명 OLED만의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항공산업발전 대상 수상

제주항공이 한국항공경영학회에서 수여하는 항공산업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항공은 한국항공경영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23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적인 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을 도모하고 환경경영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공산업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객실 승무원 안경 착용, 네일케어 허용 등 제한 규정 변경 ▲사내 의사소통 및 복리후생 강화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또 ▲녹색구매 경영 강화 및 온실

가스·폐기물·에너지 관련 중장기 목표 수립 등 실질적인 환경 리스크 최소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부문 리스크 최소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한국항공경영학회로부터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제주항공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허정윤 기자

LG전자, 이마트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

30개 점포에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클라우드 기반 관제 솔루션 구축 예정

LG전자가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공급한다.

LG전자와 이마트가 3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이마트 이용객의 체류시간 및 편의를 고려해 100kW 급속충전

기, 7kW 완속충전기를 전국 이마트 30여 개 점포에 설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와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솔루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전국 매장 내 충전기 현황을 한 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관제 솔루션을 이마트 모바일앱과 연동해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받는다.

/김서현 기자 seoh@

차세대 티맵·주행거리 379km... 편리성 높이고 속 '깍' 채웠다

자동차 시승기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모터’

가격 거의 올리지 않아 차시장 ‘주목’
출력 421마력에 전작보다 13마력 ↑
누구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

폴스타가 전기차 침체 속에서도 인기를 지키고 있다. 볼보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로 시작해 전동화 브랜드로 독립, 이제는 높은 주행 성능에 럭셔리와 가격 경쟁력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폴스타는 최근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다. 부분 변경 모델이면서도 바꾸지 않은 부분을 찾기 어려울 만큼 큰폭으로 개선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폴스타2는 제원부터 싹 바뀌었다. 듀얼모터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최고출력이 421마력에 주행거리 379km로 각각 13마력, 45km나 늘었다.

심지어는 구동 방식도 전륜에서 후륜 기반 AWD로 변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인버터를 비롯해 구동계를 최첨단 기술로 대체하고, 세팅과 소프트웨어도 대폭 개선한 덕분이다. 전후 무게 비율도 거의 똑같이 맞췄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강원도 원주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

까지 140km 가량을 다녀와보니, 승차감 개선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모터 개선은 물론 위치까지 변경하면서 럭셔리 모델답게 변신했다.

주행 성능은 가히 폭발적이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거침없이 최고 출력을 뽑아낸다. 가속력이 강력하다보니 속도 변화를 쉽게 느끼지 못할 정도다.

주행 거리도 확실하게 늘었다. 전비 주행을 하면 전기가 거의 줄지를 않았다. 고속 주행을 하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스스로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 구동을 켜고 끄기 때문

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개선했다. 볼보가 사용하는 티맵과 누구 서비스, 폴스타에서도 일부 전용 앱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리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명령어 하나만으로 다양한 작동을 한번에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속을 다바꿔놓으면서도 외관은 그릴 부분만 조금만 손댔다. 마치 마스크를 쓴 듯 ‘스마트존’을 덧붙인 것. 콘셉트카를 더 가까이 재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위쪽) 페이스리프트 실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일부 개선했다. (아래쪽) 페이스리프트에 추가한 스마트존.

/폴스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회생 제동 장점은 그대로 가져왔다. 차량 메뉴에서 원페달드라이브 수준을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표준을 선택하고 크립 모드를 OFF로 하면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고, 반대로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크립 모드를 ON으로 하면 내연기관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모드가 아닌 개별 설정을 제공해 운전자의 의지를 중시한 셈이다.

파일럿 어시스트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휠 왼쪽 버튼을 몇번만 누르면 A SCC나 파일럿 어시스트를 바로 작동할

수 있다.

그밖에도 모든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주행 모드는 물론, 시동 버튼도 없음을 정도다. 탄소 감축을 위해 부품 협력사도 대거 교체했다고 폴스타는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가격은 6090만원으로 전작보다 소폭 인상했고, 대신 일부 옵션을 기본 장착하고 전비 향상으로 보조금을 늘렸다. 플러스팩과 퍼포먼스팩 가격은 동일하지만 고급 옵션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KT,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 ‘첫 선’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행사 참석
5세대 이동통신 항공망 기술 소개
UAM 전용 5G 기술 ‘스카이링크’

KT가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에서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개발 기체와 국내 최초 버티포트 등을 이용한 비행 시연으로 한국형 UAM의 실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KT는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과 함께 전시 부스를 구성해 KT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5세대(5G) 이동통신 항공망 기술을 소개했다.

KT의 UAM 교통관리 시스템인 ‘스카이아이즈’는 인공지능(AI) 교통관리



KT가 지난 3일 전남 고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23년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에 참가해 지능형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KT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KT UAM 교통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KT

기술로 UAM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운항 스케줄 관리를 돕는다. UAM 교통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토대로 운항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운항 스케줄을 도출할 수 있다. 또 끊임 없는 통신으로

UAM 기체의 비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행 상황의 실시간 변화에 따라 동적 교통관리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KT는 UAM 전용 5G 항공망 기술인 ‘스카이링크’도 알렸다. 이 기술에는 UAM 운항 고도에서 커버리지 홀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3차원 커버리지 설계 기술과 주요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 5G 항공망 커버리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특화 안테나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UAM의 운항 고도인 300~600m에서도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T는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서 교통관리 분야에 참여한다.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5G 항공망 기술을 활용해 UAM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스타항공, 신기재 활용 운임 경쟁력 확보

10호기 도입 완료... 올해만 7번째

이스타항공이 10호기(HL8549) 도입을 완료하며 노선 확충 계획을 이어간다. 이번 10호기는 올해 일곱 번째 도입된 기체로 B737-800 기종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 B737-800 기체 3대로 재운항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6월 4호기를 도입한데 이어 7월 5호기, 8월 6,7호기, 9월 8호기, 10월 9호기를 도입하고 이날 10호기 도입으로 올해 총 7대의 기체를 추가

도입했다.

10호기 도입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차세대 신기종 B737-84대와 B737-8006대로 연초 목표한 총 10대의 기단을 완성했다. B737-8과 B737-800 기체는 7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되고 운항 시스템이 유사해 효율적인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시장 ‘도전장’

현지 4개 기업과 4건 MOU 체결

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잠수함 전문 포럼 ‘딥 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화오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캐나다 기업은 CAE, J-스퀴드 테크놀로지스, 모데스트 트리, 데스네데 등이다.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으로 전세계 시뮬레이터 시장 75% 점유하고 있다. J-스퀴드 테크놀로지는 전장 부품 제작과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가상현실(VR) 훈련장비 및 시뮬레이션 제공 업체인 모데스트 트리는 향후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업체로 꼽힌다. 캐나다 원주민 기업인 데스네데는 건설 업체로 잠수함 관련 시설 건설 협력을 담당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을 추진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인베스트먼트, 645억 청년창업펀드 결성

로보틱스, 클라우드 등 집중 투자

KT인베스트먼트가 단일 펀드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645억원 결성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모태펀드, 기업은행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고 KT는 250억원을 출자했다.

KT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난 4월 KT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사업 청년창업 일반 분야에서 8대 1의 경쟁을 뚫고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KT인베스트먼트는 이후 7월 서울시

스케일업 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돼 IBK기업은행, 신한자산운용, 성남산업진흥원, 유경PSG자산운용, 인스파이어파트너스 등이 참여하면서 결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청년창업펀드는 KT인베스트먼트 창립 이래 단일 펀드 기준 최대 규모다.

KT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펀드가 탭티어 벤처캐피탈(VC)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클라우드 ▲기업간거래(B2B) 소프트웨어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동아오츠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비타민B,C 별꽃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별꽃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₂, B₆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실패... 증권사 '상고하자' 전망

금리 변동성 확대 '실적 차별화'

하나증권, 3분기 순손실 488억
신한-적자전환, BNK-적자 늘어

하이투자, 순이익 8억 95% 급감
KB·NH증권 1000억대 순익 기록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3분기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가 많은 증권사의 실적 타격이 컸다.

5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1분기에 금리 안정화 영향으로 증권사들이 대체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던 것에 비해,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업체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의 하반기 실적 흐름도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실적은 상고하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하나증권은 488억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 연결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단위:억원)

구분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3분기	2022 3분기 누적	2023 3분기 누적
KB증권	영업이익	2623	1960	1512	3434	6057
	당기순이익	1407	1116	1115	3037	3611
NH투자증권	영업이익	2515	2204	1184	3844	5904
	당기순이익	1841	1826	1007	2341	4675
하나증권	영업이익	967	-329	-569	2944	69
	당기순이익	834	-489	-488	2847	-143
신한투자증권	영업이익	1272	1294	929	2861	3495
	당기순이익	1194	1225	-185	5704	2234
하이투자증권	영업이익	163	189	16	1072	368
	당기순이익	140	151	8	737	298
BNK투자증권	영업이익	254	-3	-36	838	214
	당기순이익	191	-4	-31	615	157

/자료=감사(검토)보고서, 각 사 공시자료

원 순손실을 입으며 전분기(-489억원)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순손실 185억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BNK투자증권은 4억원에서 31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웠다. 하이투자증권은 3분기 순이익이 8억원에 그쳐

전분기 대비 95% 급감했다.

반면, KB증권은과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3분기 각각 1115억원, 100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신평 김예일 수석애널리스트는 "금리 상승, 운용 실적 저하, 기업금융

(IB) 부문 수수료 수익 감소, 대체투자 등 평가손실, 부동산 PF에 따른 총당금 설정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3분기에는 국내 부동산 PF와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가 많은 증권사의 실적이 크게 저조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어려움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금융시장이 단기 내 안정화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국내 시장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상반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하반기 대규모 미수금 발생 사태 등 일부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는 등 금융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투자중개부문의 실적도 유의미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투자심리 악화로 기업

금융 및 투자, 부동산금융 시장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증권사 IB부문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부동산금융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중소형사의 경우 국내 부동산PF(브릿지론 포함)에 대한 손실 부담이, 대형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이 손익과 재무구조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IB부문의 저조한 실적 역시 4분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정기평가에서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건전성 저하 및 사업기반 위축에 대비한 사업구조 개편, 이익창출력 및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부실화 발생 규모와 지속성, 회사별 사업적, 재무적 대응력에 따라 신용도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555억, LG엔솔 433억... 공매도 '폭주'

'공매도 한시적 중단' 움직임에 2차전지주 중심 공매도 거래 급증

공매도 한시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켰던 2차전지주들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에 각각 555억원, 433억원 규모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몰렸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 3위였던 기아(166억원)와도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이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도 공매도 거래대금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2차전지주가 차지했다.

에코프로비엠(737억원), 에코프로(649억원), 엘앤에프(242억원) 순이며 4위였던 이오테크닉스는 33억원에 불과했다.

직전 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해당 5개 종목 모두 공매도 물량이 증가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2일 22만건 가량이었던 공매도 거래량이 3일에는 32만건까지 급증했다. 이외 종목들도 3일 포스코퓨처엠(20만건), LG에너지솔루션(10만건), 에코프로(10만건), 엘앤에프(16만건) 등으로 모두 공매도 거래량 1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2차전지주에는 꾸준히 공매도가 몰렸었다. 지난 1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3위에도 에코프로(1조97억원), 에코프로비엠(9681억원), 엘앤에프(3112억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스피 시

장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6952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2차전지주를 지지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차전지주 온라인 종목도론방 내 한 투자자는 "대한민국 증시는 공매도에 장악돼서 공매도 놀이터 맛집이 됐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관리·감독 소홀로 공매도 세력이 주식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

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발표하면서 공매도 금지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비롯한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을 논의 중에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며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일임운용 위한 AI로 시장 진출 본격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을 위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퇴직연금 AI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자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만 제시할 수 있지만, 혁신금융 서비스 자격을 얻게 되면 매수·매도·리밸런싱 등 일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개발해 지난달 27일 코스콤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앞서 7월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에 대한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테스트베드 심사가 진행되는 알고리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AI 펀드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투자자별 성향과 니즈를 고려해 자산배분, 인컴형, 테마형 등 전략으로 구분한 총 14개의 알고리즘이다. 테스트베드 심사는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3분기 역대 최대 분기실적... 4분기 성장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네이버

5.08% 올라 6거래일 연속 상승세
3분기 매출 2.4조, 영업이익 3802억
사우디와 1억 달러 '수주' 등 호재

지난달 20만원선이 무너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네이버의 주가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의 실적 성장세가 4분기에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가의 반등세가 계속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

08% 오른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주가가 20만원을 회복한 건 한 달여 만이다. 네이버는 2년전 46만 원대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 23일엔 17만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한 바 있다.

네이버의 반등에는 최근 3분기 호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2조4453억원, 영업이익은 3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15.1% 각각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역대 분기 최대 규모다.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둔화에도 커머스(쇼핑)과 콘텐츠 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덕분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와 1억 달러(약 1350억원) 규모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를 따내며 주주 '짜릿'을 터뜨린 것도 주가 상승에 힘을 더했다.

삼성증권과 KB증권은 네이버의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각각 25만원, 29만5000원과 투자여건 매수를 유지했다.

네이버는 이달부터 '도착보장'과 브랜드 스토어의 수수료 과금을 시작한다. 지난 9월 테스트를 시작한 쇼케이스 광고도 4분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광고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데다 커머스의 유료화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네이버가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경기 불확실성에도 모바일 앱 개편과



네이버 건물.

/뉴스스

숫 품 영상 확대, 신규 광고 상품 도입, 커머스 수익화 등 자체 동력 확보로 매출 성장성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X 기반 기업용 B2B 솔루션 판매가 본격화돼 신규 클라우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국내 대기업 및 금융권과 클로바 스튜디오, 뉴로클라우드 등의 구축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4분기 중으로 수주 뉴스가 공개돼 네이버 AI 사업의 가시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尹 “내년 저리용자 4조원 등 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준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성료
산업훈장 2점 등 총 144점 ‘포상’
이영 “4대 핵심과제 집중 추진”
尹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지난 3~4일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소상공인대회에선 범성정밀 김동명 대표가 철탑산업훈장, 신홍화 스너 강충호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또 쌍용반점 고영수 대표, 한성자동벨브 김용대 대표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대회에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올해 소상공인대회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란 슬로건으로 이틀간 열렸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린 소상공인대회는 올해가 18회째다.

올해 대회 정부포상에선 모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총 144점을 포상했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영 중기부장관,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오세희 소공연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 단체장,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용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앞서 메이크업 미용시험회 행사장을 방문,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행사 개최 등도 약속했다.

행사에선 소상공인연합회와 11번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카카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우아한형제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네이버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성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며 “소상공인의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해 소상공인이 잘 살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일까지 열린 소상공인대회는 ▲맞춤양복협회패션쇼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 발굴을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콘서트 ▲

법률 토크콘서트 등이 두루 펼쳐졌다.

또 쿠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가상 헤어스타일링, 라떼아트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꽃상자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박성호 이사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틀간 열린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펫산업연합회·한국애견연맹, 한국화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자동차유리 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 단체 소속 16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을 뽐냈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전통 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당당한 경제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성공한 기업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견련, 중견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예탁원과 해외 자금 조달 역량 제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손잡고 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5일 중견련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중견기업 자금 조달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속한 대내외 자금 조달 및 안정적인 주주 관리 등 중견기업의 건실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 발행, 증권 전자 등록 및 유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해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을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증권 등 집중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식 등 관리 자산 규모는 약 6400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4년 말까지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 발행 기본 수수료 20% 감면, 주식 발행 등록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예탁결제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증권 발행 업무와 주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MZ 동화작가 창작 돕는다

교원-더랜드 통해 3명 선발

교원그룹이 청년 동화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교원-더랜드(Kyowon-der Land)’를 진행한다.

5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더랜드’는 그룹이 지난 2021년부터 펼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자립적 성장을 돕는 ‘청년 창작자 지원 캠페인’ 일환이다. 앞서 진행한 웹툰작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에 이어 세 번째다.

교원그룹은 동화책 시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동화작가의 활동 무대가 좁아짐에 따라 이들이 작가로서 꿈을 지속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교원-더랜드’를 기획했다.

교원-더랜드는 MZ세대 동화작가 3명을 선발해 ‘어른을 위한 동화’를 주제로 3편의 동화를 묶어 선보인다. 단편집은 오는 12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작가들이 집필하는 동안 오롯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12월22일까지 SNS 캠페인 등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



교원-더랜드 캠페인 이미지.

는 활동을 이어간다. 교원그룹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화작가 인터뷰, 동화를 연계한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MZ세대의 관심을 적극 공략한다.

또한 완성된 단편집은 SNS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꾸준한 노력과 실력으로 작품세계를 다져온 청년작가들이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 창작자 지원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술혁신’ 공유

스타트업 축제 ‘2023 컴업’ 연계
8~10일 성수동 S-팩토리서 예정
프랑스, 日 혁신 클러스터 MOU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과 연계해 규제자유특구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K-글로벌 클러스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프랑스 코스메틱 벨리·일본 쇼난 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8일),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 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10일), UL코리아가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세미나 등도 마련했다.

또 총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에는 미

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한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까사, 펫가구 ‘몽스’ 매출 성장세

출시 이후 매월 85%씩 올라

신세계까사(SHINSEGAECASA)가 지난 8월 선보인 까사미아의 프리미엄 펫 가구 ‘몽스’가 출시 이후 매달 85%씩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몽스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만족시키는 펫 가구’를 목표로 세부적인 기능과 디자인, 소재 등에 차별화를 뒀다.

특히, 사람이 사용하는 가구들과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 고급 가구에 주로 사용하는 원목

과 기능성 원단 등 좋은 소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생활패턴과 습성,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디테일과 기능들도 인기 요인이다.

이 가운데 ▲모듈형 소파 ▲갯가구 5종 ▲펫쿠션 등 ‘모듈형 소파’와 ‘갯가구’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

몽스 소파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앉거나 동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높이는 낮게, 등받이와 팔걸이는 넓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농산물 비축했다 수요 증가 땀 방출... 가격 안정화 역할 '톡톡'

현장르포

aT 이천비축기지

최적의 품질 보관... 최장 3년까지
창고 저장용량 80% 이상 저온창고
보관기간 경과 등에 방출 못하기도
폐기물량 감축 위한 개선방안으로
분할 수매·산지 직출하 확대 추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천비축기지는 콩과 밀, 배추, 무 등 정부 비축농산물이 보관된 국내 14개 비축기지 중 최대 규모다. 부지면적 16만㎡, 보관 면적은 1만9780㎡에 달해,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수매해 비축하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방출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방문한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에 들어서자, 한기가 밀려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 내부

/한용수 기자

김영백이천비축기지 관리소장은 "최적의 품질로 보관하기 위해 저장고 온도는 10℃ 정도로 유지한다"면서 "최장 3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관 품목이 수분이 있는 농산물이다 보니 품목별 보관 온도와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조마늘, 참깨, 콩, 팥, 녹두 등은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보관해야하고 최대 보관

기간은 품목별 24개월~60개월까지다. 수분이 많은 배추나 무의 경우 보관기간이 가장 짧다. 0도 내외 습도 90% 조건으로 보관해도 최장 4~5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천비축기지 창고 저장용량 중 80% 이상인 약 1만6500㎡는 저온 창고다.

10월 31일 기준, 콩 2274톤, 참깨 1946톤, 콩나물 콩 1845톤을 비롯해

밀, 팥, 감자, 건고추, 무 등 총 8482톤을 보관 중이다. 지난해 기준 2만여톤이 입고됐고 2만2000여톤이 출고되는 등 연간 4만3000여톤이 입·출고되며, 대형 트럭 5382대가 드나들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창국 aT 수급관리처장은 일본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매 농산물 폐기도 농산물 수급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30% 가격이 하락해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비축 농산물 3만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폐기물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aT는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수확기 기간별 물량을 배정해 수매하는 분할수매를 도입해 생산량 회복 등 수급여건 개선시 잔여물량 미수매로 인한 폐기를 줄이고, 고랭지배추 등 품위변화가 빠른 품목은 산지 직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3000톤 규모 예냉 전처리 및 전문 비축기지를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등 민간 수급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생산량이 많으면 안정을 위해 수매하고 시장가격리를 시켜야 한다"며 "어느나라나 시장가격리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과잉 생산되는 물량을 어느정도 폐기처분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자금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 등 4대 권역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사장은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을 다량 수매 보관하고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곡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설치 등 미래 식량안보 강화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부산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유치 성과 공유·투자 환경 제시
실질적·맞춤형 투자상담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6일~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베스트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우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2년 305억불, 2023년 3분기 누계 239억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 행사인 IK 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 옴카람 나라마수 CT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국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르노·유미코아·램리서치·에퀴노르 등 글로벌 첨단기업은 한국 진출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글로벌 앵커기업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되고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해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투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中 국제수입박람회, 韓 '역대최대' 참가

총 212개 기업 참여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



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가 4년 만에 박람회 현장에 참석한다. 양 차관보는 5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상하이 소재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편법 지급보증 회피 적발

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참관 가능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과 다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 16일 공

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



창업아카데미

무료 교육프로그램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일정

A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 성공적인 창업 배출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직접 강의 (CEO 35년 경력)

교육약력

1996년 ~ 現 : 대한홍삼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방송 브레인TV 대표이사
 2005년 ~ 現 : 햇터라이프 대표이사
 2009년 ~ 現 : 한삼장홍삼 대표이사

교육주관



2003. 9. 12 설립

햇터그룹지주회사

자금/투자 관리
 법무 및 행정 관리
 세무회계 관리



2003. 10. 1 설립

30천만이상 시청자보유
 방송전문기업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기획 및 송출
 광고주 관리



1996. 9. 3 설립

국내 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상품 개발 및 제조
 브랜드 홍보 / 관리
 대리점 관리



2009. 10. 1 설립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온라인 전문 유통
 오프라인 전문 유통
 해외수출 전문 유통



2005. 5. 20 설립

업계최초 계층형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서비스
 물류/상품 서비스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번출구 또는 7호선 6번출구 →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차장 황 선 영 010-4480-004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전남도, 국내 첫 '친환경 부표' 개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바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55% 차지 (썬이폴리텍·SL해원 제작 맡아 내년 인증 취득 후 대량 양산 돌입)



전남도가 지원해 국내 첫 개발한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친환경 부표'가 전남도 지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와 완도지역 소재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바다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하얀색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

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부표의 경우 자연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 중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데 있다. 이에 전남도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어업용 친환경 부표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여수 소재 썬이폴리텍과 완도 소재

SL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 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또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해수부에 친환경부표 정식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대량 양산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실증을 확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 부표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기자재 제조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토록 지원하는 '해양 생분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생분해부표 국내 첫 개발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과 해양쓰레기 오염 문제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며 "전남이 화이트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더 노력하고, 화이트바이오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함안군 강소농대전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 함안군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관한 2023년 강소농대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등 농가경영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이다.

군은 강소농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경영개선교육과 자율모임체 육성, 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503명의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다. /함안(경남)=이도성 기자

고창군 용평리조트와 테마파크 조성

고창군이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 3자 MOU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고창(전남)=양수영 기자

울주군, 美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상담 33건·573만弗 성과

지역 中企 美 진출 기회 제공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진행

울산 울주군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33건, 상담금액 57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에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기술 동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자 파견됐다. 개척단에는 지역 수출 기업 7개사 외 울주군, 한국무역협회 울산 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지난달 31일 북미 서부 시장 진출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1일과 3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33건, 573만 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돼 추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척단은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플러그 앤드 플레이'와 AI 기반 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를 방문해 미래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울주군은 해외 시장 현지 파견이 어려운 기업에 위해 올해 말까지 '울주군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 온라인 참여 기업 5개사를 포함한 총 12개사의 주요 제품을 홍보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환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과를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울주(울산)=이도성 기자 metrobusan@



진도군 관내 유관기관들과 씨월드고속웨리 지역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식. /진도군

진도군, 지역 일자리 창출·인재 채용 '박차'

관내 3개 기관과 협약

진도군이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씨월드고속웨리(주)-진도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종훈 씨월드고속웨리(주) 대표이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진도 출신 청년 취업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정보·방안 공유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에도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 3월 진도항과 제주 애월항을 잇는 항로 개설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신규카페리 취항을 앞두고 있다.

신규카페리는 승객 600명과 화물차 40대, 승용차 100대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으로 취항에 따른 현장 인력 등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또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해 진도-제주 구간 쾌속카페리 취항에 따라 진도 출신 인재 4명을 채용,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청년에게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관들과 협력체를 유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전남)=이도성 기자 eogh7505@

경남도, 소 렘피스킨병 조기 백신접종

오는 8일까지 마칠 계획

경상남도는 소 렘피스킨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8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렘피스킨병 백신 접종 대상은 10,580농가의 소 35만 6천두로 지난 1일 새벽 백신공급을 마친 뒤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진행중이며, 2일 기준 백신접종률은 29.3%로 10만 4천두가 접종을 마쳤다. 렘피스킨병 백신은 피하접종용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정확한 접종이 요구되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충분한 방역력 확보까지 3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

에 신속한 백신접종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방역당국은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 등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전업농가까지 접종지원 대상 확대하였다.

이로써 접종 지원을 받는 두수는 접종대상의 73%정도인 25만 9천두 가량으로 기존 12만 2천두에서 2.1배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축협, 방역지원본부 등 전문 보정인력을 당초 341명에서 396명으로 55명 추가 투입, 접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초 접종완료 목표인 11월 10일보다 2일 앞당긴 8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경북도, '새마을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지방시대 선도 발판 마련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이어 나가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다시! 함께! 새마을!'을 주제로 지난 3~4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2023 새마을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첫 개최된 새마을 페스티벌은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였던 경북을 위기에서 기회로 탈바꿈하고, 다음 세

대가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축제다. 특히,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에게 새마을 후드티를 입혀줌으로써 새마을정신 계승과 세대 간 화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스리랑카 마힌다야 파야베라르다나 국회의원, 국회의원 등 해외 내빈들이 참석해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경북도 국비캠프, 국비 확보 총력전

경북도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연석 국회의원의실(국민의힘, 김천)에서 국비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비캠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도와 시군, 국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상임위 및 예결위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등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80억원 증액된 4조 4540억원을 반영시켰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총 104건 5718억원의 사업예산이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때 아닌 고온현상에... 편의점 '웃고' 패션·백화점 '울상'

유통가, 매출 희비 엇갈려

GS25·CU 얼음·빙과류 매출 급증 SSG닷컴 반팔티셔츠 23% 신장 백화점·패션업계 패딩·코트 등 단가 높은제품 판매 저조에 우려

11월 초겨울을 앞뒀지만 전국적으로 때 아닌 고온현상이 벌어지면서 빙과류 상품의 매출은 늘고 방한용품 매출은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업계와 패션·백화점 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대목을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반면, 편의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대낮 기온이 27도 안팎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 26.5도, 대구 27.3도, 포항 28도 등으로 역사상 11월 최고 기온이다.

이에 유통업계 전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편의점, 대형마트, 커머스 업계에선 때 아닌 빙과류, 맥주, 얼음, 에어컨 등 하절기 대표 상품의 매출이 역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행하고 있다.

GS25가 최근 2일(11월1~2일) 한강 인근 10개 매장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빙과류 556%, 얼음컵 296%, 탄산음료 196%, 이온음료 158% 매출이 가파른 폭으로 상승했다.

가족단위, 애견동행 나들이객도 늘었다. 완구 125%, 반려동물 상품 108% 등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관계자는 "얼음컵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11월이면 얼음컵 매출이 거의 다 빠진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나가 하이볼이나 커피를 시원하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CU에서도 최근 일주일(10월27일~11월2일) 사이 얼음(24.3%), 아이스드링크(20.8%), 아이스크림(17.2%), 맥주(11.3%) 제품이 전년 동기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SSG닷컴에서는 반팔 티셔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신장하고 에어컨 매출도 전년비 27% 늘었다.

이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선풍기(100%)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수박(27.8%), 얼음(12.5%), 맥

주(12.2%) 상품 판매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한강이나 청계천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나들이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산했던 거리가 북적인다. 덩달아 공원, 관광지 등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때 아닌 고온현상으로 유통업계 전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말, 방한용품 등 겨울 시즌 특수 대목을 노리고 있던 백화점·패션업계는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백화점 및 패션업계는 1년 매출 절반이 겨울 장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단가 높은 핵심 패딩, 코트 제품들의 판매가 저조하다. 11월 방한용품, 패딩, 코트, 아웃도어 판매를 위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저조한 매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파는 코트, 패딩 상품들은 겨울 시즌의 핵심 카테고리, 11월 히트 상품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 패션 전반의 매출이 저조하다. 비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농심, 고단백 스낵 '우와한 렌틸콩칩 치폴레맛'

농심은 지난 5월 출시한 '우와한 렌틸칩'의 후속작으로 고단백 스낵 '우와한 렌틸콩칩 치폴레맛(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우와한 렌틸콩칩 치폴레맛은 맛과 영양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개발한 제품이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렌틸콩 분말 함량이 39%이며, 단백질 함량은 11.6%로 기존 스낵의 2~3배에 달한다.

농심은 여기에 최근 이국적인 맛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치폴레 소스로 매콤하고 새콤한 맛을 더했다. 치폴레 소스는 훈연한 할라피뇨에 토마토, 마늘 등을 넣어 깔끔한 산미와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주로 멕시칸 요리에 많이 사용된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첫 고단백 스낵인 '우와한 콩칩'과 '우와한 치즈칩'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제품은 '우와한 렌틸칩'에 이은 네 번째 고단백 스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 대학생과 함께 '창의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전개

봉사단 '밸유 for ESG' 발대식 119개팀 지원, 최종 20개팀 선발

롯데는 지난 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 '밸유 for ESG'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ESG 기반 봉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개팀 80여명과 롯데지주 CSV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프로그램 소개 및 참가자들의 활동 선서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 윤순진 서울대 교수 특별강연, 멘토링 세션과 ESG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롯데 '밸유' 사업은 'Value Creators in Universities'의 줄임말로, 롯데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청년층과 함께 ESG



롯데는 4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밸유 for ESG' 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롯데

G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롯데지주는 계열사 ESG 프로그램 참여 연계, 활동비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2018년 첫 창단한 밸유 봉사단은 환경보호, 착한 소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9월 한 달간 이뤄진 봉사단 모집에는 대학생 119개팀이 지원해 최종 20개팀

이 선발됐다. 내달 본격 활동을 개시하는 2023년 밸유 봉사단은 대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폐의류 업사이클링을 통한 유기견 용품 제작, 다문화 가정 아동용 그림책 만들기,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를 반영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봉사단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는 등 SNS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롯데는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며 각 팀별 활동 계획에 대한 실질적 분석 및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활동 기수의 의견을 반영해 멘토 인원을 4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활동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봉사단 지원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다음달 롯데칠성음료 반려해변 입양 및 정화 활동에 밸유 봉사단이 함께하는 등 계열사 ESG 캠페인과 연계한 활동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3 밸유 봉사단으로 선정된 중앙대(CAVA팀) 박현아씨는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가치를 전달한다는 밸유 for ESG 활동과, 저희 팀의 가치인 더불어 행복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번 활동에 많은 기대가 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최빛나 기자

쿠광 로켓배송에서 '오토바이' 판매

'오토바이 용품 전문관' 개설

쿠광이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로켓배송 최초로 오토바이 판매를 시작했다. 쿠광은 최근 '오토바이 용품 전문관'을 개설하고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비롯한 각종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오토바이 전문관의 입점 브랜드는 부산에 위치한 50년 전통의 이문차 전문 중소기업 한솜모터스다. 오랜 업력으로 전국 판매망 및 A/S 인프라를 갖추어 배달용 스쿠터와 입

문용 바이크를 찾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쿠광은 성능 검사를 거친 오토바이와 스쿠터를 '로켓설치' 방식으로 고객에게 선보인다. 오토바이를 주문하면 설치전문기사가 안전하게 상품을 배송하고, 고객은 직접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수하게 된다. 일반 제품과 달리 인수 완료 후에 단순 변심으로 반품과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보며 전문가와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함께 확인한다.

/최빛나 기자

"조선포털 침구, 집에서 만나세요"

더 조선포털, 상품 라인업 확대

조선포털엔리조트가 운영하는 침구 브랜드 '더 조선포털'은 고객들이 호텔에서 경험한 최상의 숙면을 가정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다양한 침구 상품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가을, 겨울 시즌에 맞게 추천하는 '더 조선포털 헝가리 구스다운'은 사계절, 미디어, 간절기, 여름용 등 다양한 종류로 출시하고 있다. 헝가리산 구스를 사용했으며 구스 다운 함량 93%

이상이므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100%에 가까운 프리미엄 제품이며 털 빠짐을 방지하는 다운 프루프 원단 사용과 파이핑 마감 등으로 오래 쓰고 싶은 구스다운 베딩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다.

'더 조선포털 구스토퍼'는 연세가 있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다. 구스토퍼 역시 헝가리산 구스를 사용하여 고중량으로 제작되어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척추를 보호해주며 숙면을 돕는다.

/최빛나 기자

티몬 '티나는데이' 기획전 그래픽카드 초특가 판매

티몬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초특가로 선보인다.

티몬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티나는데이' 기획전을 열고, 그래픽카드를 비롯 인기 PC하드웨어를 특가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인텔의 최신 그래픽카드들을 모두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최대 13% 전용 할인 혜택과 티몬의 연간 최대 프로모션인 몬스터절 추가 할인도 누릴 수 있다.

티몬플레이 라이브 방송으로 역대급 판매도 펼쳐진다. 6일 밤 9시 라방 판매에서는 완성형 그래픽카드 손꼽히는 '아수스 ROG 매트릭스 플래티넘 지포스 RTX 4090(2대 한정)'을 선보인다. 최고 사양의 플래그십 모델로 한정수량 출시된 상품이다. 이외에도 인기 상품인 아수스 지포스 RTX 4070 Ti 모델 그래픽카드도 온라인 최저가로 전한다.

최근 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그래픽카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티몬의 PC하드웨어 판매액 또한 꾸준한 성장세다. 상반기 티몬의 메인보드·그래픽카드 판매액은 전년 대비 3.1배를 기록했고, 구매고객도 2.7배 급증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5월 열린 이엠텍 라방 판매에서는 1시간만에 6만 2000여명의 고객이 몰리며, 티몬 PC카테고리의 역대 판매액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의료체계, AI 시대 대변혁 직면... 규제·인프라 선도해야”

한림대의료원 ‘일송학술심포지엄’

AI로 변하고 있는 사회 양상 조명
다수 강연자들 제어 필요성 지적
최양희 총장 “세계 연대 참여해야”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도현학술원장,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배순훈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조현찬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도현학술원장,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배순훈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조현찬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뒤 “산업 혁명은 도구의 발전이었다면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든다”고 평가했다. 핵 기술은 스스로 ‘핵 무기’가 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도 이날 행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변혁이 문명을 파괴하고 재정의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가 대변동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변화의 시대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규제 마련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버킹엄셔 블레츨리파크에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오픈AI와 구글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과 영

국, 미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출시하기 전에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리시 수백 영국 총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영국이 중개자로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인공지능 안전성과 관련된 국제 논의에서 자수성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식민지가 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명전환을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는 “과거에는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현대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한림대의료원은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가상병원, 검사실 등을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아프리카 등 백신 공급 불평등 해소 ‘앞장’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협력 논의
안재용 사장 “다양한 정부, 기관 협력”

전 세계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백신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진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진 카세야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카 백신 제조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글로벌라이



지난 3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진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 사무총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이션’ 전략은 백신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기반을 이식하는 사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13년 만에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세르비아

총리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 카세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백신 자급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의 목표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전체 유통 백신의 6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는 결핵, B형 간염, HIV, 말라리아, 에볼라 등에 대응할 백신을 갖추기 위해 백신 개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아프리카 지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뮤지엄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

이랜드뮤지엄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영화 소품&의상전)을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캔싱턴호텔 여의도 1층에서 개최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은 이랜드가 보유한 50여만점의 소장품 중 달콤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속 소품과 의상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 소장품으로는 ‘초콜릿 천국, 1971’의 초대 왕카 ‘진 와일드’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든 티켓’, ‘찰리와 초콜릿 공장, 2005’의 주인공 찰리 ‘프레디 하이모어’의 코스튬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C녹십자의료재단, 인니 등 해외 진출 속도 동아ST, ‘유전자 치료제’ R&D 역량 강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건강검진 센터 설립 프로젝트 발표

GC녹십자의료재단이 인도네시아에서 건강검진 센터 설립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인니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이 인니 의료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인니 현지 파트너사 로커스(Locus)를 비롯해 인니 부동산 기업인 씨뿌뜨라(Ciputra)와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는 GC녹십자의료재단 해외 진출의 핵심 지역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세계적인 진단검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메사추세츠 의과대 공동연구 추진

동아에스티가 합성신약 부문의 강점을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의과대학과 아테노부속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테노부속바이러스에 탑재한 유전자의 약효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면역 질환 중 만성 염증성 질환을 위한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한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면서 특정 세포에 유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를 활용해 수정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발한 것이 바이러스 벡터다.

아테노부속바이러스 또한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정성은 높고 면역반응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바이러스 벡터와 달리 병원성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계약을 통해 구아핑 교수와 심재혁 교수를 비롯해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청하 기자



임프린투 팝업 매장 모습 /LG생활건강.

LG생건 ‘임프린투’ 팝업매장 운영

LG생활건강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고객들이 ‘임프린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생활건강은 새로운 뷰티 브랜드 ‘임프린투’ 팝업 매장을 오는 1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팝업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으로,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동편(209 구역) KA L 라운지 앞쪽이다. /이청하 기자

GLOBALCONTENTS PRESENT

17세기 파리, 위대한 전설이 시작된다!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23.9.15 - 11.19 한전아트센터

주최 (주)조선방송,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 (주)글로벌컨텐츠 | 제작 (주)글로벌컨텐츠
티켓예매 YES24 인터파크 티켓링크 | 공연문의 1577-3363, 02-2051-1698



Licensed by Ckoxama Musical, Prague present Three Musketeers, music by Michel David, Bryan Adams/Michael Kamen/Robert Lange, libretto by Lou Fonanek Hojgen and Liber Vaculik, book by Liber Boculik and Lou Fonanek Hojgen based on the novel by Alexander Dumas. The song All for Love used with the kind permission of Bodans Music Ltd, Sony/ATV Music Publishing, Universal Music publishing and Warner/Chappell music Publishing



네오위즈-SK하이닉스, 글로벌 마케팅 협업 MOU

네오위즈가 SK하이닉스와 글로벌 마케팅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사양 게임이나 최상의 PC 환경을 즐기는 이용자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 집중해 양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왼) 네오위즈 박성준 라운드8 스튜디오장, SK 하이닉스 안준범 cSSD 마케팅 TL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오위즈



호반사랑나눔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활동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해명보육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서 호반사랑나눔이는 1400kg의 김장 김치를 담고 호반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한 성금 2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호반사랑나눔이



BGF리테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1200장 전달

BGF리테일은 지난 4일 30여 명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금번 봉사활동을 통해 총 1200장의 연탄을 복지 사각지대의 기혼 및 에너지 취약 계층에 전달하고, 올겨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BGF리테일



덕성여대,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 연수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ODA개발협력센터는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캄보디아의 영양사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의 영양사제도 소개'를 주제로 마련됐다.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대-동경이과대, 한일 공동 학술 심포지엄

성신여자대학교는 3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동경이과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주관으로 동경이과대학교와 한일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 이론부터 기계학습 및 딥러닝 방법론 등에 대해 토론하며 그동안 한일 양교가 거둔 학문적 성과를 공유했다. /성신여자대학교

바느질 봉사로 사회 따뜻하게... 김도순씨 등 3인 '의인상'

LG복지재단 광경희·남기엽씨 시상 "따뜻한 헌신, 사회에 더 확산되길"

봉사와 살신 성인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이 새로 LG의인상을 받았다.

LG복지재단은 김도순 씨와 광경희 씨, 남기엽 소방위에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김도순 씨는 3급 지적장애이면서도 1996년부터 발달장애학생 재봉지도와 지역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수선 등 2만시간에 달하는 무료 봉사를 이어왔다.

김도순씨는 "장애로 인해 한 때 비관한 적도 있었으나 봉사를 통해



김도순 씨



광경희 씨



남기엽 소방위

더 큰 행복을 찾았다"며 "몇 년 전 재봉을 가르쳤던 학생이 국제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상한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광경희 씨도 2005년부터 미혼모 입양아가 입을 매넛저고리와 독거노인을 위한 수의를 만들어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면마

스크 1만개 이상을 만들기도 했다.

광경희씨는 "나눔을 위한 바느질은 매 순간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재능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남기엽 소방위는 지난 9월 16일 자택이 있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단지에서 16층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린 20대 여성을 목격하고 난간을 타고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LG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랜 기간 바느질 봉사를 해온 두 분과 쉬는 날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관의 따뜻한 헌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의인상은 故 구분무 회장이 제정해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시상범위를 확대하며 217명에 시상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KT위즈, NC 다이노스 격파... 2년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KT 위즈의 '마법'이 가을야구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역대 3번째로 리버스 스윙을 써내면서 2년 만에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무대를 밟았다. KT는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2023 신한은행 쏘 KBO PO 5차전에서 NC 다이노스에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KT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KT 위즈의 '마법'이 가을야구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역대 3번째로 리버스 스윙을 써내면서 2년 만에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무대를 밟았다. KT는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2023 신한은행 쏘 KBO PO 5차전에서 NC 다이노스에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KT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하성 동국대 교수 KWACS 회장 취임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동국대학교는 황하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가 4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KWACS) 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황하성 신임회장은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직하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인터넷, 모바일, SNS)의 이용과 효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주로 연구했다. 현재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

SK머티리얼즈, 대학생 68명에 '미소인 장학금' 전액

첨단 소재분야 인재 학업 지원 이용욱 사장 "대한민국 미래"



SK(주)머티리얼즈 이용욱 사장 (앞줄 왼쪽)과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

SK(주)머티리얼즈가 첨단 소재 인재 육성을 지원했다.

SK(주)머티리얼즈는 3일 첨단 소재 전공 대학생 68명에 '미소인 육성 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소인은 SK머티리얼즈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장학 프로그램이다. 미래 소재 인재 줄임말로, 임직원이 제안하고 SK그룹 인재양성 철학을 담아 현실화했다.

장학금은 SK(주)머티리얼즈와 자회사 구성원들이 매월 급여 0.5~1%

매년 200만원씩 전달한다. 수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첫 수혜 시점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SK(주)머티리얼즈는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소재 분야 인재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소재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 이용욱 사장은 장학생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학업에 정진해 훗날 첨단 소재의 글로벌 인재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현대차,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자 모집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체험 교육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이어간다.

현대차는 6일부터 24일까지 2024년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된다. 중학생 대상 정규 단기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고

학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을 교육하고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체험하고 업사이클링 하는 등 다양한 체험 교육 보조 재료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2016년 민간기업 처음으로 교육부와 함께 미래자동차학교를 시작해 전국 2200개 초중학교와 5만70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공학적 원리와 미래 모빌리티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미래자동차학교는 올해부터 미래 모빌리티학교로 이름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연관 학생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왔다. 내년에는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새로 등장할 모빌리티 개념을 다룬다. 성장 세대 눈높이에 맞춰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학습에 응용하는 체험 학습을 제공한다. 보조 재료로 주도적 수업 참여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인사

◆ 메트로 신문 △의정부 남양주 주재 기자 이석중

부음

▲ 박애자씨 별세, 이용관(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씨 모친상 = 5일 새벽, 서울직접사법원 장례식장 특실1, 발인 7일 오전 10시. 02-2002-8444

▲ 방상국씨 별세, 방승현(홍해기술부사장)·종현(강원도 특별자치지문관)씨 부친상 = 5일 오전 1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 031-787-1500

▲ 정인수(전 신흥공작소 대표·향년 77)씨 별세, 정은숙·정은실 정하영씨 부친상, 이은미씨 시부상, 장태식·황호연씨 장인상 = 4일 오후 4시28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20분. 02-3010-2000

▲ 신순임(향년 95)씨 별세, 차은희·차은옥·차은자씨 모친상, 김용만·황태성·김종림씨 장모상, 김경중(MBN 시사제작부장)씨 외조모상 = 4일 오후 10시15분, 인제대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장지 우이동 선영. 02-950-1492



지역별 선착순
특허공법으로 **즉석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AMAS 즉석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연기 인생 반세기,
탤런트 김경하



탤런트 이경영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쑥~쑥 AMAS 즉석 어린이성장깔창



발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회생인가, 실현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

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이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

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관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원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바른

택시가 쏘아올린 카카오 위기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최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여파에 이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여론 악화에 방점을 찍은 것. 이에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 주가가 연일 추락하며 개미무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

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방안을 마련해주시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현재 카카오택시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당국의 표적이 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이 운임의 3~4%에 불과하지만 이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도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가 가입한 택시가 우타·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카오택시 사업은 그룹의 황금알에서 '계륵'으로 변모하고 있다. 2년 전 다진 카카오의 위기에 카카오택시가 중심에 있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의 가격인상이 택시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 것. 영세사업자와 서민경제가 얽혀있는 만큼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한몫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히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준법시스템과 경영진의 의식 등이 기초체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형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면서 대형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카카오 사업 분야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준법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감시할 기구를 마련하고, 진정한 대기업 수준의 내실을 다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48년생 이익은 없지만 각박해져 가는 마음을. 6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72년생 내 말이 다 옳을 수 없다. 84년생 한밤중에 원인을 알면 대처방법이 있다.
- 소** 37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솔선수범이다. 49년생 협력의 수레바퀴가 노후를 포근하게 이끈다. 61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73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85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오겠다.
- 로랑이** 38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5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비 오는 격. 62년생 유혹이 많으니 충심을 잘 잡자. 74년생 피곤한 날에 휴식이 필요하다. 86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 토끼** 39년생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51년생 흉물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63년생 취약한 날이니 반드시 메모. 75년생 사업은 나의 책임과 판단에서. 87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 용** 40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5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도 좋다. 6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계획을 정리.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신중하게. 88년생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 뱀** 41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 봐도 별 볼 일 없다. 53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65년생 재혼 때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을 조심하자. 89년생 마음의 문을 열고 재산 분배.
- 말** 42년생 고쳐 쓰기 힘든 것은 빨리 버려라. 54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6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78년생 내게 관계없는 일에 구설 참견 마라. 90년생 일단 하찮은 걱정은 접어 두라.
- 양** 43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5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7년생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데 외로운 이유는 무엇인지. 79년생 좋은 운을 살감하는 날이다. 91년생 서남쪽의 이사는 행운을.
- 원숭이** 44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56년생 행복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68년생 창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80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92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 닭** 45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57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 69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인다는 것을. 81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이다. 93년생 바람이 불고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해라.
- 개** 46년생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관하지 마라. 58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70년생 겉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2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94년생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 돼지** 47년생 지출을 줄여가면서 외출. 59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기뻐라. 71년생 잘 쓰던 뭇스던지 나의 판단에서 나온다. 83년생 문제아들 뒤에는 문제 엄마가 있기에 마련. 95년생 책임이란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기본과 기초를 키워나가야 한다.



김상회의四季 절기의 지혜

한로(寒露)가 지나고 곧 입동이다. 한로는 뜻 그대로 찬 이슬이다. 하늘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는 슬슬 짧아지기 시작하고 한로를 기점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현저해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니 밤의 길이는 몸으로 느낄 만큼 길어질 것이다. 인디안 썸머의 따끈한 햇살은 이제 입동 맞이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절기들은 해의 길이라 불리는 황도(黃道)를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가 크다. 계절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순기능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삼월 삼짇날 즈음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단오 때에는 창포가 흐드러지다. 중앙절에는 국화가 한창이다. 절기에 맞춰 나는 꽃이나 나무들은 그 시기의 천지의 기운을 댕박 담고 있다. 약재로도 쓰이며 생활화에도 훌륭한 무기질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자재로 쓰인다. 특히 가을에 나는 국화 꽃잎은 채취해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데 심신을 평안하게 해준다.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해독제를 선사해주는 것이다.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천지 자연은 묵언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그 시절에는 절기야말로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거둬들여야 하는 계절의 시계였으니 이만한 지침서가 없다. 그러므로 때를 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얘기와도 상통한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대부분의 민속제로 기념되는 절기의 민속 절들은 어느 순간 중요도가 점차 낮아지는 듯하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제사 전통이 약화하여 가고 있다. 농업이 산업적 우위를 잃어가면서 전통 민속절이나 행사 역시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풍습으로만 인식되는 탓일 게다. 절기, 시절의 때를 알려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스도쿠 365 0

스도쿠 365 10

7		4				6
		4	1	3	9	5
	7					3
	6					2
8	2					7
		3	8	2	4	6
2						9

1	4					6	2
3				4	6		8
	2			5			
	3		9		1		5
					3		1
2			8	1			7
6	1					8	5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열흘 남은 수능... “9월 모평 등 복습하고 생체리듬 맞출 것”

킬러문항 빠진 첫 수능으로
중고난도 문제로 변별력 확보
고1~2학년 핵심 개념 재점검
실전처럼 시간 내 문제 풀고
답안 마킹 훈련까지 연습 필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023년 11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수능 고득점 기원 응원나무'에 수능 대박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16일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일이면 딱 10일 남는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이 시기 새로운 내용보다 모의평가나 EBS, 오답노트로 복습하고 실제 시험 시간 따라 생체리듬을 맞추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새로운 것보다 '오답' 위주 복습...모평·EBS로 마무리

올해 수능을 10여 일 앞두고 5일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 앞서 공부한 것들을 위주로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진 첫 수능으로, 수능 유형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를 활용해 점검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수능

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로 출제될 전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평 출제경향이 유지된다면 이번 수능에서는 중고난도 문항을 연달아 출제하는 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고난도 문제 풀이에서 핵심은 고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처럼 난이도가 가늠이 어려운 수능일수록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문제량을 늘려서 해결하

려고 해선 안 된다"라며 "오답 정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중요 개념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도 "수능 마무리 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학습법 중 하나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까지는 들추지 말고 익숙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 상승을 예고한 만큼,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EBS 교재) 수능 연계율 50%이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보았듯이 연계 체감도는 더 높았다"라며 "(9월 모평이) 연계 교재 지문이나 문항을 가급적 소극적으로 변형해서 출제됐으며, 그런 경향은 실제 수능에서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컨디션 관리... "실제 시험 시간 맞춰 하루 보낼 것" 수능은 오전 8시40분 시작해 오후 5시45분 끝나는 시험으로 긴 시간 집중

력이 필요하다. 생체리듬을 수능시험 당일엔 맞춰 조정하고, 실제 시험 시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답안 마킹 훈련까지 꼼꼼히 하면 좋다. 메가스터디는 "이제부터는 실전처럼 시간 내 문제를 푸는 연습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한다"라며 "실제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연습해 두는 게 좋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거나 무리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 이만기 소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서서히 오전에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둬야 한다"라며 "수능 전 가장 좋은 컨디션 관리 전략에 대해 수험생들은 잠을 깊이 자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잠도 부족하지 않게 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행복한 서울시 위해 ‘도시안전’ 투자 필요”

서울시, 향후 5년간 투자 분야 질문 응답자 23.8% “도시안전” 답해 이어 사회복지·도시계획 등 꼽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구현하려면 '도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UL MY SOUL은 시가 올 8월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로,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서울 마이 소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23.8%가 '도시안전'이라고 답했다. 염모 씨는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다. 내가 사는 도시가 안전

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 도시안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달라는 시민 요구가 많았다. 이모 씨는 "최근에 칼부림 사건들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발생해서 그런지 치안,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쓰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 내 범죄 다발 구역, 인적이 드문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를 꼭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모 씨는 "무동기 범죄로 도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시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환경"이라며 "폐가옥, 폐건물 등의 슬럼가 형성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깨끗하고 밝은 도시 조성이 무동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모 씨는 "범죄에 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단기적인 경찰력 증가뿐만 아니라 우범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도시 정비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이 첫 번째로 도시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중 여러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던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시안전에 이어 사회복지(22.5%), 도시계획·주택정비(14.6%), 도로교통(12.5%), 문화관광(8.7%), 공원환경(8%), 산업경제(7.2%) 분야가 서울 마이 소울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 복지를 통해 빈곤 인구를 줄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가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기자 hik1@

경기도 베이비부머 71% “지속 근로 의향”

일자리 취업 지원 절실

경기도 베이비부머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경기도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1.7%(717명)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이 40.7%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필요 정책을 보면 학습활동 지

원에서는 '취업,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30.1%), 취·창업 지원 정책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7.4%),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에서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발굴'(20.5%),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에서는 '취미 및 활동 공동체 형성 지원'(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경기도 전체인구의 31.5%(428만 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욕구를 확인했다"며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친환경차,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공식 홈페이지서 신청 시스템 운영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5년 이내 중고차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차

륜차·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소유주가 서울시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6일 (월)

음력 : 9월 23일

수도권 날씨

16~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7:02 | 해짐 / 17:29

연천 16/18, 동두천 15/17, 가평 16/16, 파주 15/16, 서울 16/17, 양평 16/17, 인천 16/17, 수원 16/17, 용인 16/17, 백령도 13/14, 평택 16/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여성은 집에서 애 낳고 돌보아야”... 시진핑의 저출산 대책
▲ 오바마 “이·팔 전쟁, 누구의 손도 깨끗하지 않다” 일침 /사진 뉴시스

▲ 중동 순방 블링컨, 이스라엘·아랍국가에 ‘일시적 휴전’ 퇴짜 맞아
▲ 호주 총리, 7년 만에 방중... “최대 무역국과 건설적 대화할 것”



▲ 한국은 공매도 금지한다는데... 필리핀, 27년만에 허용 /사진 뉴시스
▲ 인도, 8억 국민에 ‘곡물 무료 정책’ 5년 연장



[경제종합]
K라면 승계 속도
혁신·글로벌 주도
오너3세 '전면 등장'
04



Life

[라이프]
때 아닌 고온현상에
편의점 웃고
패션·백화점 울상
니



“세종시 사랑방... 부담없이 좋은 환경에서 소통하세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샘커뮤니케이션즈
황재모 대표

“세종시에 새벽을 연다는 생각으로 버렸다. 이제는 동이 트고 있는 것 같다”

황재모 샘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처음 점포 문을 열고 5년간 도전과 성과를 이렇게 정리해줬다. 한때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움으로 생존 위기도 있었지만, 인근에 최근에 인테리어와 서비스 등을 그대로 모방한 점포가 새로 문을 연 것은 사업 모델이 통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며 웃었다.

샘은 세종시에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회의실과 분리 공간들로 이뤄진 커다란 홀과 함께 대형 회의실을 따로 2개 두고 있다. 단골들에게는 ‘소금 커피’ 집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에는 조용하게 와인이나 위스키를 한 잔 하는 장소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주로 찾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주요 정부 부처들에 둘러싸여 있어 가까운데다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인테리어 디자인에 8층에 위치해 인적도 뜸하다는 장점이 있다.

황 대표는 창업 전까지만해도 10여년 경력의 홍보인이었다. 홍보대행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여러 브랜드를 담당했고, 완성차 업체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지금도 당시 동료들과 만남을 이어올 만큼 평판도 좋았다.

10년 경력 홍보인에서 창업 시작 세종시에 만남의 공간 ‘샘’ 열어 카페 홀과 대형 회의실 분리 공간 낮에는 ‘소금커피’, 밤에는 ‘와인’

황 대표가 세종시와 단절을 느낀 것이 이 때부터다. 세종시가 당초 정부 기관은 물론 기업과 언론까지 모이도록 설계한 행정중심지였지만, 정치적 문제로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 기관만 남게 된 탓이다. 그나마도 상권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아 기업과 공무원들끼리 모일 장소마저도 부족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퍼블릭 어페어즈(PA)’에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

특히 2018년 한 수입차 브랜드의 화재 이슈가 결정적으로 창업을 결정한 계기가 됐다. 당시 수입차 회사가 서울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논란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 같은 날 오후 세종에 있는 관련 당국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발표를 진행하면서 양쪽 모두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다. 서울과 세종이 분리된 탓에 보도에 혼란을 겪는 언론도 안타까웠다.



황재모 샘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래서 황 대표는 세종시에 ‘사랑방’을 만들기로 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소통을 만든다는 생각. 세종시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공무원과 기업 담당자 등 여러 사람 생각도 확인했다. 퇴직 후 커피숍 알바를 하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와인 공부도 하며 실무 준비도 병행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집도 없어서 공사 중인 매장에 침낭을 깔고 자면서 완성했다. 매장에 작은 티끌까지도 손이 안닿은 곳이 없다고 황 대표는 말했다.

“역동적인 소통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정부에 의견을 내기 어렵고, 정부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로 거점을 만들 자본이 있는 기업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본이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부담없이 미팅을 하기도 좋고, 잠시 머물다 가기도 좋은 ‘샘’ 같은 곳이다.”

황 대표가 기대했던 대로, 샘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처음 창업했을 때만해도 홀과 회의실 하나, 독립 공간 2개 등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이제는 대형 회의실을 2개와 중소회의실 3개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샘을 둘러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단골 손님, 타지에서 온 기업 관계자들도 부담없이 찾고 있다. 독특한 맛에 더해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까지 녹여낸 소금커피가 대표 메뉴, 좋은 와인을 추천하는 바로도 이름을 높였다.

더 큰 꿈도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정부 기관 인근에 있는 호텔처럼 소통 공간은 물론 숙박까지 제공하는 ‘원스탑’ 공간이다. 회사에서는 대외 협력 임원으



카페 샘 카운터 모습. 저녁에는 바로 변한다.

로고위 임원이지만, 세종시로 출장을 나오면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숨기지 않았다.

‘샘’ 사람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호텔·숙박 ‘원스탑 공간’ 더 큰 꿈 시니어 일자리 등 지역발전 기여 소통 확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PA를 이끄는 로비스트가 유독 국내에서는 나쁘게 인식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주체다. 세종시도 국회 분위기가 운영되고 자리를 잡으면 이런 활동이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과잉화로 정책보다 정파가 중요해진 국내 정치도 한층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 정부 기관 인근에는 모임 공간은 물론 숙박업소도 변변치 않다. 낮 시간 양복을 입고 나니 지긋하신 분들이 배낭을 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해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샘을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처럼 키우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다.”

황 대표가 샘을 공간 사업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황 대표가 정의하는 샘은 ‘PA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카페 샘이 사랑방으로 입지를 굳힌 상황, 일단 하드웨어를 완성했다고 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 중이다.

먼저 디지털로 세종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타지에서 세종시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자료를 공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를 샘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세종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다. 세종시는 국내 최고 인력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적지 않은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황 대표는 봤다. 가까이 은퇴한 공직자부터 기업이나 언론 관계자, 배우자를 따라 커리어를 포기한 사람 등이다.

황 대표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내려오면서 쉬고 있던 와인 전문가를 매니저로 채용했고, 은퇴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며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니어 전문가를 활용한 플랫폼은 구체화했다.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으로 주요 담론을 파악하고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일종의 시니어 연구원이다.

“세종시 공무원 90%가 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하드웨어는 완성됐다고 보고, 사회 소통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고,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니어에 일할 기회와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고, 디지털을 활용하면 세종시에 있는 청년 세대에도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 대표가 아직 10명을 넘지 않는 직원들에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아낌없이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느 아들과 같이 부친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도 둘 사이 좋게 찍은 사진도 없다. 그저 어릴 때 지역 사회를 위해 희생하던 부친의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 일을 해냈고, 지금은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늘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연속성·지속성 강조’ 클린스만호, 11월 A매치 명단 6일 발표 /사진 뉴시스
▲이재성, 헤더 결승골... 마인츠, 10경기 만에 시즌 첫 승

▲‘스트림플레이션’ 현실화... 부가통신 서비스 비용 가중
▲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11월 16일 개최, 올해도 안전 최우선”



▲울버햄튼 황희찬 2호 도움, 6연속 공격P... 팀은 1-2 석패 /사진 뉴시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최종전... “한국 시리즈 윤곽 잡혔다”